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토포교배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25,6-10ㄱ

화답송 | 시편 23(22),1-3 ㄱ,3 나ㄷ-4.5.6(◎ 6ㄷㄹ)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필리 4,12-14.19-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2,1-14

영성체송 |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성가 | 입당 337 예물준비 250(237)
영성체 169(168) 파견 239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박성배 토마스
-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이일희 아우구스티노
- 김순권 스테파노(Stephen)

생미사 지향

- 정원준 막시밀리아노 축일 축하
- 연령희 회원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 배성용 가브리엘 영육간의 건강
- 이세희 프란치스코 영육간의 건강
- 허우현 롱기누스 축일 축하
- 이웅희 루카 신부님
- 문 안나의 회복, 쾌유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마태 22,14)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11일	정유진	국민준	이경자	국민준 이경자	유정옥 이영혜	김도이 허강현
10월 18일	장혜윤	정은철	류유리	정은철 류유리	김종선 정다경	이예진 한서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본당 행사로 10월 11일, 10월 18일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영성의 해' 제5차 특강

오늘	아래성당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

꾸리아 월례회 및 전 단원 교육

일시/장소: 10월 18일, 11:00AM 프란시스룸
강의: 이윤희 루카 신부님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준비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자 전 신자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어린 기도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기간: 26년 10월 4일부터 ~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25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4/25(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10/4: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겨울철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Free Flu Shot)

일시: 10월 18일(주일) 10:20AM-2:00PM(주일미사 후)
장소: 산 다미아노홀
주최: "Linda" from Walgreens(pharmacy store)
준비물: 본인 ID or 의료보험증(소지한 사람의 경우)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인원 파악을 위해 희망자 명단을 받습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Sr. 마리루시)
- 코리안 오피스에 독감예방접종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면 당일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보험 소지하신 분들은 코로나와 폐렴 예방 접종도 가능합니다.

찬양기도회: '푸른 올리브'

함께 모여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주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시/장소: 10월 24일(토), 4:00-5:30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제16차 성장세미나(성령쇄신봉사회)

일시: 11/13(금) 1:00PM-11/15(주일) 5:00PM
장소: 뉴튼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320(식사/숙비 포함) + 교재비 별도 \$20
대상: 기초성령세미나를 받은 분으로 영적 성장과 공동체 봉사를 원하시는 분
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 성령기도회 사정상 10월, 11월, 12월 찬양미사는 잠깐 쉽니다.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희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희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cnyc.org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고성운 요셉
(? ~1816)

'성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운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별암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본디 성품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형 고성대 베드로와 함께 성경을 읽고 이웃에게 신앙을 권면하며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후 형과 함께 경상도 청송 노래산으로 이주한 그는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

내다가 경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을해박해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포졸들을 도적으로 오인하여 신자들과 함께 저항했으나, 관청에서 파견된 이들을 알게 되자 저항을 멈추고 어린양처럼 양순해져 가장 먼저 포승을 받았다. 형과 함께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대구로 이송된 그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증언하였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 형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그는 미혼이었으며, 형장 인근에 묻힌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거두어져 안장되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4, 가해, 2026. 10.11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r@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RESTORE STUDIOS

Dr. Iris M. Kim, PhD

▶ 레드라이트 테라피

▶ 컴프레션 마사지

▶ BREATHWORK

▶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오늘은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코린토 2서 8장과 9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짧게 한두 줄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앞서 코린토 1서의 끝부분에서(16,1-4) 이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신자들을 위한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1코린 16,1)라고 하는 것을 보면, 코린토 교회에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방법도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모금한 것을 가지러 갈 때 비로소 돈을 모으지 않도록, 매주 첫날에 집에 돈을 따로 모아 두라고까지 일러 두는 것이지요. 그런 설명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너무 치밀하게 모금에 대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코린토 2서에서는 티토와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코린토 교회로 보내면서 다시 모금을 독려합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의 예를 듭니다. 마케도니아 신자들은 코린토 신자들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닿는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내놓았고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셨습니다”(2코린 8,4)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은근히 돌려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신자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유하시면서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어,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2코린 8,9 참조).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삶의 모든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죽음까지 겪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만 잘살겠다고 내 소유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이 사소한 것이라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자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코린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몸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같은 식구끼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모금을 보내는 것은 그들 사이에 실제적인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2코린 9,13)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1,가해, 2026. 09. 20.



* 출처: <서울주보>, 제2635호, 2026년 10월 11일

< 사막에서 하느님과의 함께 피정 >

- * 일시: 2026년 11/16(일) ~ 11/21(토)
-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Center, Gallup, New Mexico
- * 피정 지도: 이 소피아 수녀
- * 협력사제: 김윤곤 아드리아노 신부님
- * 피정비: 700불(수익금 일체는 원주민 사목에 쓰임)
- * 문의: 이소피아 수녀.

Cell:718-690-6093, sofiasfma@gmail.com

♠ 공항에서 피정의 집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입니다. 피정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하는 날 오후 2시까지 ABQ, NM 공항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마치는 날 1시 이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